

“금속 미래 계획 산업전환협약, 투쟁으로 만들자”

금속노조 2021년 투쟁선포식 ... 산재처리지연 대책 촉구 근로복지공단 농성 돌입

금속노조가 함께 사는 산업전환협약 쟁취와 자본 주도 산업전환 저지를 걸고 2021년 투쟁을 선포했다.

금속노조는 4월 7일 울산 근로복지공단 본사 앞에서 ‘산업전환협약-산별노조할 권리 쟁취, 해고금지-사회안전망 강화, 금속노조 2021년 투쟁선포식’을 열었다. 전국에서 모인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투쟁선포식을 치렀다.

대회사에 나선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현대차 정의선 회장의 지난해 임금은 15%가 오른 60억 원이다”라며 “자본과 정권은 코로나 19를 핑계로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협박해 임금인상을 억누르고 자기들 배만 불렀다. 이것이 문재인 청와대가 말한 따뜻한 자본주의냐”라고 비판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노조는 대의원대회에서 산업전환협약을 통해 금속산업의 지속 발전과 일자리를 확보하자고 결의했다”라며 “어렵게 만든 단체협약이 산업 전환기에 휴짓조각이 되지 않도록, 단위 사업장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산업전환협약을 쟁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완성차 지부를 대표한 김성갑 한국지엠지부장과 지역지부를 대표한 윤장혁 울산지부장은 연단에 올라 한목소리로 촛불 민심을 배반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노동자가 주도하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해 금속노조가 전면에서 나서야 한다고 외쳤다.

김성갑 한국지엠지부장은 “한국지엠은 창원물류센터를 일방 폐쇄하는 등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라며 “물류센터를 폐쇄하면 정규직은 살지만, 비정규직은 계약해지된다. 지부가 물류센터를 사수하고 정리해고를 저지하는 투쟁을 조직하겠다”라고 결의했다.

윤장혁 울산지부장은 “산업전환과 대선으로 한국사회의 향방을 가를 시기가 금속노동자 앞에 다가오고 있다”라면서 “민주노총이 조직하는 110만 11월 총파업에 금속이 선봉에 나서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110만 11월 총파업에 금속노조가 선봉에 서자”

이날 투쟁선포식에 울산 현대호텔 옥상에서 불법파견 철폐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전영수 사무장과 이병락 대의원이 영상상으로 함께했다.

전영수 사무장은 “악질 현대중공업 자본에 맞서 서진이엔지 해고

자 동지들이 252일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라면서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차별·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금속 동지들이 힘을 모아 달라” 라며 연대를 호소했다.

투쟁선포식을 마친 금속노조는 같은 자리에서 ‘산재처리지연 근본대책 촉구, 산재보험제도 개혁, 근로복지공단 규탄, 금속노조 결의대회’ 를 진행했다. 노조는 이날부터 공단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김동성 노조 부위원장은 대회를 여는 발언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수많은 노동자가 보상제도가 있는데도 제때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해 이중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라며 노조가 농성을 시작한 이유를 밝혔다.

김동성 부위원장은 “산재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는 면담, 기자회견, 집회, 농성, 그림자 투쟁, 해결방안 직접 제시 등 할 수 있는 투쟁은 다했다” 라며 “공단은 노력한다는 말뿐,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신 차릴 때까지 투쟁해야 한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의대회를 마친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붉은 천을 근로복지공단 앞 곳곳에 묶으면서 산재노동자를 외면하는 공단을 규탄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투쟁선포식 전에 미얀마 군부를 지원하는 포스코를 규탄하고, 미얀마 민중의 민주화 투쟁을 지지하는 연대 행동을 펼쳤다. 선포식 사전행사를 진행한 최윤정 노조 조직실장은 “금속노조가 학살에 저항하는 미얀마 민중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린다” 라고 선언했다.

대우조선 파워공 금속노조 가입, 함께 싸운다

작업거부 투쟁 ... 일당 인상, 퇴직적치금·단기계약 폐지 등 6대 요구 던져

거제 대우조선 파워공들이 3월 31일 08시 작업거부를 시작했다. 파워공들은 4월 8일까지 작업거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파워공은 조선소에서 짓는 배에 페인트칠을 하기 전 그라인더로 철판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노동자들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파워공 투쟁에 함께하고 있다. 작업거부 투쟁 과정에서 파워공 100여 명이 지회에 가입했다.

지회는 4월 6일 대우조선해양 사내 9개 도장업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지회는 ▲일당 2만 원 인상 ▲퇴직적치금 폐지 ▲단기계약 폐지·최소 1년 단위 계약 ▲법정 연차휴가 보장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블랙리스트 철폐 등을 요구했다.

김형수 지회장은 “금속노조에 가입해 노동조합과 함께 투쟁하는 만큼, 조직력을 높여 강고한 투쟁으로 실제 생산에 타격을 주어 6대 요구를 쟁취할 것이다” 라고 결의를 밝혔다.

김형수 지회장은 “과거 파워공 투쟁처럼 변변한 협상·합의 없이 마무리하지 않는다. 금속노조가 이번 투쟁부터 반드시 도장업체들과 문서로 합의하고 투쟁을 마무리 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다.

삼성중공업 파워공들이 대우조선에 앞서 작업거부 투쟁을 벌였다. 삼성중공업 도장업체들은 파워공들이 투쟁을 시작하자 퇴직적치금을 폐지했다. 삼성중공업 파워공들은 자기 일당에서 퇴직금을 떼어 적치하지 않고 별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삼성중공업 도장업체들은 투쟁 뒤 복귀한 파워공들에게 2개월짜리 단기계약을 강요했다. 결국, 1년 이상 계약하지 못한 노동자는 퇴직금으로 받을 수 없게 돼 투쟁 성과가 무력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지회는 “삼성중공업 투쟁을 교훈 삼아 대우조선해양 파워공들은 퇴직적치금 폐지와 단기계약 폐지를 요구했다” 라고 설명했다.

지회는 “삼성중공업은 기존 일당에 연차휴가를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법정공휴일을 일당에 포함하는 근로계약서를 제시했다” 라면서 “대우조선 파워공은 연차휴가와 법정공휴일 모두 일당에 포함하지 않고 유급보장을 요구했다” 라고 밝혔다.